



# 금쪽상담소 상담 일지

이름: 현승혁

학번: 20225213

상담 일자: 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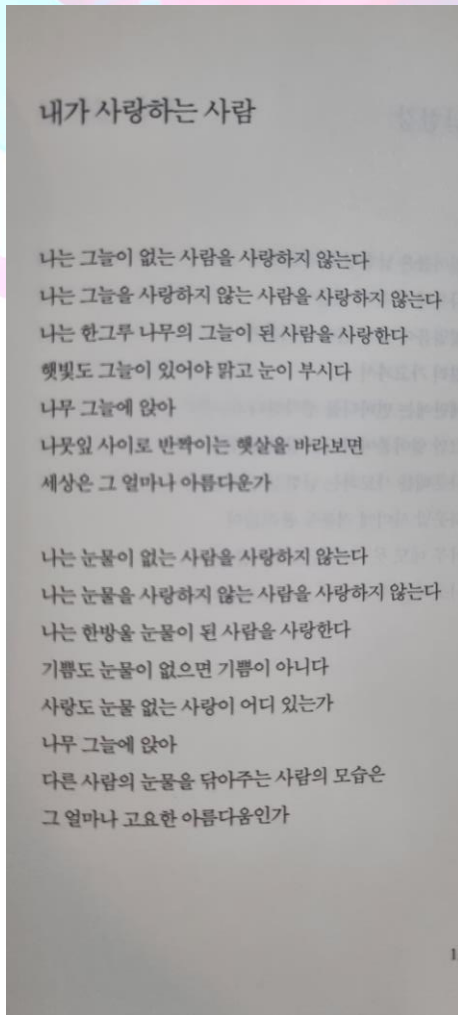
**Q: 금쪽이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A: 건강 악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다. 중학교 때 무릎을 좀 크게 다쳐서 수술을 했고, 지금도 후유증이 조금 남아 있다. 무릎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고, 남들에게 배려 받아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워진다. 현기증, 어지럼증에 의해 길을 가다가 몇 번 쓰러진 적이 있다.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 없었다. 지금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가끔씩 무리할 때마다 현기증, 수면 중 공황 등이 찾아온다.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무섭다..



## Q: 금쪽이에게 어떤 시를 추천해 주었나요?

### 1.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선정 이유: 아픔이 결국 자신을 단단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신의 내면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좋은 가치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해석

1~4 행, 8~13 행: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아픔은 부정적인 가치가 아닌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화자

5~7 행, 14~17 행: 아픔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낌

## 2. 나뭇잎 사이로

## 나뭇잎을 닦다

저 소나기가 나뭇잎을 닦아주고 가는 것을 보라  
 저 가랑비가 나뭇잎을 닦아주고 가는 것을 보라  
 저 봄비가 나뭇잎을 닦아주고 기뻐하는 것을 보라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고이고이 잠드는 것을 보라  
 우리가 나뭇잎에 얹은 먼지를 닦는 일은  
 우리 스스로 나뭇잎이 되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 푸른 하늘이 되는 일이다  
 나뭇잎에 얹은 먼지 한번 닦아주지 못하고 사람이 죽는  
 다면  
 사람은 그 얼마나 쓸쓸한 것이냐

선정 이유: 건강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 승혁이에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모두가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는 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3-4 절: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 성장하며 살아감을 나타내는 구절

5-7 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담긴 구절

8-10 절: 고통이 있기에 즐거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구절